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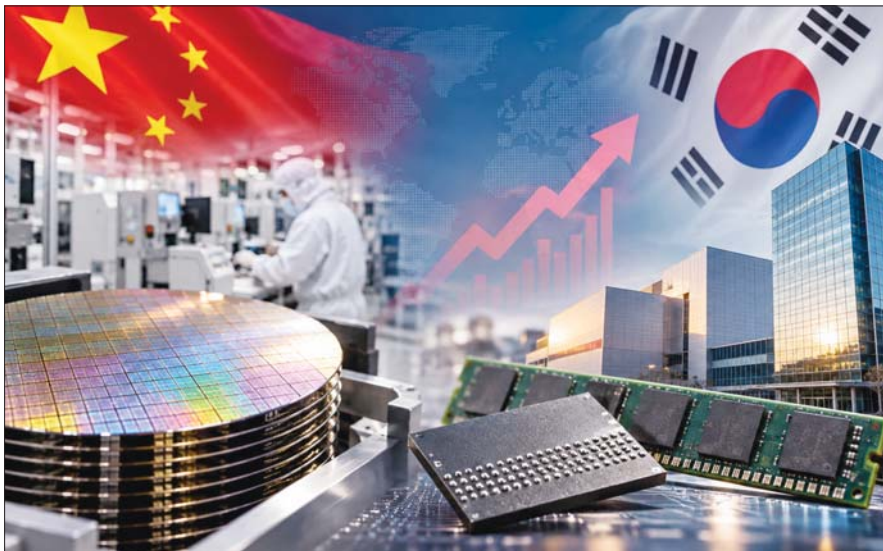
中 반도체 생산 18.4% 늘어… 범용 D램 가격경쟁 격화 예고

지난달 中 반도체 생산량 543억개 CXMT, 글로벌 D램 점유율 10%
올해 누적 매출액 54조… 742% ↑
웨이퍼 생산, 月 50만장 확대 전망
당장 범용 D램 가격 변동은 제한적
2028년 이후 가격 하락 압력 가능성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범용 D램 시장의 가격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향후 공급 확대가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543억개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8월(529억개)에 이어 두 달 연속 500억개를 웃돈 가운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생산량도 4428억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 늘었다.

다만 중국 전체 반도체 생산량 증가를 D램 공급 확대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이번 통계에는 메모리와 시스템반도



AI에 의해 생성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생산시설 및 메모리 반도체 경쟁 이미지.

체 생산량이 모두 포함돼 있어 중국 메모리 업체의 D램 생산 증가분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XMT 점유율 10% 기록…생산 효율 개선으로 추격

중국 전체 반도체 생산량과 별개로 현지 최대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CXMT의 글로벌 D램 매출 점유율은 10%로, 전년 동기(4%) 대비 6%포인트(p) 상승했

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한다.

CXMT의 실적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 16일 공개한 잠정 실적 전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최대 2700억위안(약 5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램 가격 상승과 생산시설 확충, 공정 개선 등이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CXMT는 설비 가동률과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높이는 한편 5세대 D램 제조공정(G5)을 적용한 저전력 D램(LPDDR5)

X)을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서버용 D램 개발도 추진하면서 스마트폰 중심의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매출 증가에는 D램 가격 상승이 반영된 만큼 실적 개선 폭을 실제 생산량 증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中메모리 증산 전망…삼성·SK 가격 경쟁 변수

CXMT의 생산능력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범용 D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업체들이 PC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공급을 늘리고 제조원가까지 낮출 경우 기존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반도체 분석업체 세미애널리시스는 CXMT의 월간 웨이퍼 생산능력이 올해 말 약 35만장에서 2028년 말 약 50만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5일 엑스(X)에 “중국은 2028년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RAM)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범용 D램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데다 CXMT의 5세대 D램(DDR5) 제

조원가도 주요 메모리 3사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미애널리시스는 향후 2년간 D램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업체들과 국내 업체의 경쟁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발열 관리, 고객사 품질 인증 등이 중요한 만큼 범용 D램 증산이 곧바로 HBM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PC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범용 D램은 중국 업체들의 공급 확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CXMT가 공정 개선으로 제조원가를 낮추고 생산량까지 늘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범용 D램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산업 보고서에서 중국 CXMT의 증산이 2028년 이후 범용 D램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욱 삼성증권 Tech팀장 등은 “2028년 또는 2029년 이후에는 범용 다램 가격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삼성·SK, 美 규제 속 中 생산시설 유지 ‘고심’

솔리다임, 다렌공장 장비 반입 협의
美 신규 낸드 생산거점 확보 검토도
삼성전자, 시안공장 공정 고도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현지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에 제한을 두는 가운데 양사는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신규 생산거점 확보를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은 중국 다렌 낸드 플래시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추가로 반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가 미국 신규 낸드 공장 건설 구상과 다렌 공장의 장비 반입 승인 문제를 연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공장 전경.

장비 반입 대상은 다렌 공장 내 ‘모드 B(ModB)’다. 2023년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당시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장비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모드 B 장비 설치는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며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중국 시안 낸드 공장의 공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주요 거점으로, 미국의 장비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시안 공장의 8세대(V8-236단) 낸드 전환을 마친 데 이어 시안 2공장(X2)의 9세대(V9-286단) 낸드 전환도 연내 완료하고 양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중국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투자액은 4654억원으로 전년보다

67.5%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다렌 공장 투자액도 같은 기간 52% 늘어난 4406억원을 기록했다. 두 낸드 생산거점에 투입된 금액은 총 9060억원이다. 투자액 증가가 생산능력 확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사가 기존 중국 생산시설의 유지와 공정 고도화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미국의 장비 수출통제는 양사의 현지 투자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적용하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VEU는 사전 승인된 사업장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때 개별 수출 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올해부터 기존의 포괄적인 면제 대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장비를 반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수출은 허가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

술 고도화를 위한 장비 수출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다렌 공장에 장비 수량을 제한한 2026년분 허가가 발급됐지만 지난 15일 기준 2027년분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 역시 시안 공장의 차세대 공정 전환 과정에서 미국의 장비 수출 허가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국 장비 규제와 현지 반도체 투자 확대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신규 낸드 생산거점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솔리다임은 미국 동부 지역 등을 후보지로 낸드 공장 건설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월 신규 투자설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생산시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장비 확보와 공정 전환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이찬진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 맞추기 위해 심사 서둘렀다”

(금감원장)

2026 국정감사

“코스피 급락에 일부 영향 있다 생각”
사퇴 요구엔 “인사권자가 정할 사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심사 절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고, 도입 과정에서 공식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추진에는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정 맞추려 심사 빨리”…공식 반대 없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거래소 예비심사 종료 전 심사에 착수한 경위를 묻자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인지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 확인 여부에는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입 전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묻자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 송구하다”고 밝혔다. 공식 반대 여부에도 “직접적으로 없다”고 답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높은 투자 위험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과거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다”라는 발언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이

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의미나는 송 의원의 질문에는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왜 막지 않았는지 묻자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며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계 뱃전”이라고 답했다. 코스피 급락에 해당 상품이 영향을 미쳤는지에는 “(해당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퇴 요구엔 즉답 피해…솔리다임 규제 검토

오후에는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상품 도입 검토를 주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시 참석자인

황 부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관련 보고 여부에 대해 금융위 회의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사퇴 의사를 묻자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답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에는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정윤 기자 zelkova@



metro